

# 외신, 비핵화·2차 북미 정상회담 길 열지 주목

“김정은에 더 많은 행동 설득  
워싱턴 조야 우려 해소 중요”

## 3차 남북 정상회담 앞다퉀 보도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신들은 이번 회담이 교착상태에 놓인 북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길을 열 수 있을지 예 주목했다.

17일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북한 핵 프로그램에 관한 대화의 교착을 깬 남북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열린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러나 궁극적인 청중은 미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FT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평양에서 만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은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회담을 위한 토대를 준비하기 위한 만남이 될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앞선 북미 1차 정상회담은 실질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다리를 놓으려 시도했고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취소한 후에는 회담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설득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FT는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조야의 우려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분위기를 전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동대 김준형 교수는 “문 대통령의 주된 과업은 김정은 위원장이 더 많은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회담 전망과 관련,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남

북 정상회담의 만남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향하는 길을 닦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문은 앞서 북미 대화가 흐트러질지도 모를 위협 속에서 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양보하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데 상응하는 조치로 김 위원장에게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 “한국의 입장은 (종전선언과 비핵화 목록을) 동시에 교환하는 게 어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문정인 특보는 “북한이 대략 10개의 핵폭탄을 남기기를 희망한다”며 김 위원장이 그렇게 한다면 차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AP통신은 이번 회담에 나서는 문 대통령에게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주어졌다고

전망했다. 이는 비핵화 협상이 깨지는 것을 막고 북미간 화해 노력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일련의 남북협력 계획이 속도를 붙이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자연스럽게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낙후한 기반시설 개선은 남북 양측에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는 투자라는 믿음에 따라 이 문제에 접근해왔다고 AP는 전했다.

김 위원장도 올해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회동하는 등 대외관계 개선에 나섰다. 지금은 경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AP는 설명했다.

AP는 그러나 “이런 구상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이었을지도 모른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지난달 남북의 경의선 철도 복속 구간 합동조사 계획을 불허한 사실과 “한국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워싱턴 일각의 우려를 소개했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150〉 경제관료 유안

유안(劉晏, 716-780)은 산둥성 조주 남화 출신으로 자는 사안이다. 현종, 속종, 대종 때의 경제관료로 안녹산 난 이후 궁핍해진 재정 재건에 큰 공을 세웠다. 권력투쟁에 패해 사사되었다.

어려서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다. 725년 현종이 태산에 봉선(封禪)했는데 어린 나이에 현사를 지어 황상이 크게 기뻐했다. 관직에 들어가 천보 연간

하현과 은현의 현령을 지냈다. 이어 시야사로 승진했다. 안녹산 난 이후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고 재정을 재건하는데 힘을 쏟았다. ‘부국의 명신’이라는 찬사를 받게 된 배경이다. 760년 호부시랑이 되고, 탁지·주전·염철등사에 발탁되었다. 761년 강경이 반군 지도자 사조의와 대통한다는 고발 사건

함과 함께 재상 원재의 모반죄를 국문해 죄를 자복 받고 원재 일당을 제거하였다. 제오기가 시작된 소금 전매제를 충실히 집행해 재정을 굳건히 하였다. 속종 초기에 전 60만이 들어왔는데 대종 말년에는 1천 2백만 명이 징수되었다. 소금 판매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금 값이 뛰면 산 값에 공급해 가격 안정을 도모했다. 이를 상평염(常平鹽)으로 불렀다.

속종, 대종 기간 거의 20년간 재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득이 권력투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779년 5월 대종이 죽고 태자 이괄이 즉위했다. 좌복야 유안과 시랑 양염이 서로 사이가 나빠졌다. 그가 오래 담당한 전운사를 철폐할 수 있다는 등 온갖 악소문이 나돌았다. 양염이 재상이 되자 황상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유안은 여간 유충익과 함께 모의하였습니다.” 또한

### 안녹산 난 이후 재정 재건한 ‘부국 명신’

에 연류돼 사천성 통주자사로 강임되었다가 다음해 복직했다. 하남도수륙전운도사를 겸하였다. 763년 이부상서·동평장사 직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764년 권력을 농단한 환관 정원진과 친했다는 것에 연좌되어 태자빈객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전란으로 인해 회화와 황하를 잇는 운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장안으로 물자공급도 어려워졌다. 대종은 그를 하남·강희 이래전운사로 삼아 문제를 해결토록 하였다. 그는 회화와 황하를 잇는 운하 변수를 건설해 원만히 소통시켰다. 이에 따라 매년 쌀 수십만석을 장안에 공급해 물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다. 당시 쌀이 모자라 관중의 쌀 한 말에 1천 전으로 치솟았고 백성들은 이삭을 주어 금군에게 제공하고 궁궐에는 두 끼의 식사분을 비축하지 못할 정도였다. 대종은 크게 기뻐해 장안 근교인 동위교까지 호위병과 의장대를 보내 그를 환영했다. “경은 나의 소하로다”라며 그의 공적을 하고조 유방을 도와 황우를 꺾는데 공헌한 소하에 비견하였다.

766년에는 천하를 나누어 호부상서 유안과 시랑 제오기에게 재화와 부세를 관장토록 하였다. 특히 그에게 강화·호남 등 강남 지방을 맡김으로써 나라의 곳간을 사실상 그에게 위임하였다. 770년에는 이부상서로서 어사대부 이

상서성이 국정의 근본인데 전운사 등 여러 사가 설치돼 권한이 분산되니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황상은 천하의 전과 양곡을 모두 금부와 창부로 돌려보내고 유안이 관장한 전운·조용·청묘·염철 등사는 철폐토록 하였다. 이어 주문을 올리는 일을 부실히 했다는 이유로 벼슬을 깎아 사천성 충주자사로 내려보냈다. 형남절도사 유준이 양염과 공모해 “충주자사 유안이 주차에게 구원해 줄 것을 요구한 편지를 보냈는데 대부분 조정을 원망하는 내용입니다.”는 상소를 올렸다. 또 유안 이 충주의 병사를 불러 모아 조정의 명을 거절하려 하였다고 모함하였다. 이에 황상이 조서를 내려 그를 사사토록 하였다.

안사의 난이 일어나고 천하가 궁핍해졌을 때 그는 재정을 관장해 장안으로 식량이 공급되도록 하고 운하가 원활히 소통되도록 하였다. 또한 소금 전매제를 통해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관리를 뽑을 때 원칙과 능력에 따라 선임해 유안 사후 당의 재정을 담당한 관리는 대부분 그가 키운 사람이었다. 그가 전운사가 되었을 때 천하의 호구는 2백만에 불과했으나 말년에는 300여만이 되었다. 재정 수입이 매년 4백만 민에 불과했으나 말년에는 1천만 민이 되었다.



초강력 태풍 ‘플로렌스’가 미국 남동부를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홍수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16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잭슨빌의 주택가와 요트 정박지 등이 높아진 수위로 물에 잠긴 모습. /연합뉴스

### 美 허리케인 플로렌스 최소 16명 사망...홍수 피해 확산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강력 폭풍 ‘플로렌스’가 16일(현지시간) 열대성 저기압으로 강등됐지만, 여전히 캐롤라이나 일대에 많은 비를 쏟아부으면서 곳곳에서 홍수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노스·사우스 캐롤라이나 2개 주(州)에서는 현재까지 최소 1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미 국립허리케인센터(NHC)에 따르면 플로렌스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 내륙인 그린빌 부근을 지나고 있다.

폭풍의 위력은 확연히 약해졌다. 한때 메이저급인 4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강화했던 플로렌스는 해안에 상륙하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강등됐고, 다시 열대성 저기압으로 조정됐다. 현재 최대 풍속은 시속 35마일(56km)로 감소했다. 그렇지만 ‘느림보 행보’로 물 폭탄을 쏟아부으면서 치명적인 홍수위험이 이어지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플로렌스가 사람이 걷는 것 보다도 못한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캐롤라이나 지역엔 향후 며칠간 최고 1m의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륙 산악지대에 가까워지면서 산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국립기상청(NWS)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의 케이프피어강은 41피트(12.5m)까지 수위가 높아지면서 범람했다. /연합뉴스

###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칠레 고위 성직자 교황, 영구 제명 명령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은 칠레 고위 성직자가 영구 제명됐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칠레 가톨릭 교계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크리스티안 프렉트의 성직을 박탈하도록 명령했다. 70대 후반의 프렉트는 다른 성추행 혐의로 5년간 직무 정지를 당한 바 있다. 산티아고 대교구는 프렉트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렉트는 1970년대 아우스토피노체트전 독재정권이 자행한 고문 등 인권 탄압에 맞서 싸운 가톨릭 인권보호단체를 이끈 인물이다.

칠레에서는 올해 들어 가톨릭 교계의 성추행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사법당국마저 가톨릭 교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칠레 검찰은 지난 7월 1960년 이후 아동 178명을 포함한 총 266명에게 성적 학대를 하거나 관련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가톨릭 성직자와 평신도 25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올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 비금도 옆에 있는 단독섬 "팻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 3번지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 무인도
- 목포에서 50분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교환가능(현금 3억+기타부동산)
- 매매 14억(대출3억 포함)

문의. 010-6834-7400

문의.010-3605-5000